

35. 성소정결 복음

2012. 8. 26.

금빛 새벽 은혜와 진리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중에 성소정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소구조와 성소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소정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레16:16~19]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8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성소정결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전제로 성소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예).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실 것인지요? 성소봉사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답: 예, 지난 시간에 성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성소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곧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봉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하셨거든요.(출33:20)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면 사람들은 다 죽고 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소제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속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 속죄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루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소의 원형이시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성소의 원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 이야기를 들을 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의 봉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 성소구조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시간에는 성소봉사에 대

하여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소봉사는 두 부분인데 하나는 첫째 칸 곧 성소봉사이고 다른 하나는 둘째 칸 곧 지성소봉사입니다. 휘장으로 칸을 막아서 휘장 앞부분을 성소,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성소봉사에는 타미드, 곧 항상 하는 봉사, 또는 매일하는 봉사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와 떡 상차리기와 등대 불 켜놓기와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끊임없이 행하는 봉사입니다. 그 중에 제사봉사는 크게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다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액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복음적 의미를 일일이 다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자리도 아니니까, 속죄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회개의 제사라는 말이지요. 죄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드려야하는 제사입니다. 죄인이 희생의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한 다음 희생의 짐승을 죽이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번제단 네 귀퉁이에 난 뿔에 바르고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절차들이 있지만 지금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를 뿌리는 예식은 제사장과 민중전체의 속죄를 위한 것과 평민이나 백성의 일반 지도자들의 속죄를 위한 것은 좀 다르지만 피를 뿌리는 예식은 같습니다.

3.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제사 예식이 복잡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사하는 의미와 목적을 말씀하시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답: 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회개한 죄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회개한 죄인은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용서받지만 죄 자체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피를 바르고 뿌린 곳에 기록이 되어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시해주셨습니다. 렘17:1을 읽어보시지요.

[렘17:1]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예, 여기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다는 말씀이 바로 제물의 피를 바르고 뿌린 자리에 죄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용서받았으나 죄 자체는 완전히 처리될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의미지요. 이런 사정은 캘리포니아 교통위반자학교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캘리포니아 교통위반자학교의 어떤 면이 성소봉사의 속죄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면 교통위반자학교에 교육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교통법원에 제출하면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용서받고 교통위반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지요. 그러나 그 위반 사항은 37개월간 교통법원 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37개월이 되면 법원의 기록도 삭제되어서 그가 교통 위반한 사실이 완전히 없

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요.

5. 아,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성소봉사 곧 타미드의 봉사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회개한 사람들 개인은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번제단 뿔에 바르고 사면에 뿌린 피와 성소 휘장에 뿌린 피로 상징되는 성소에 기록된 죄가 마치 캘리포니아 교통법원에 37개월간 남아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말씀이군요?

답: 예,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지요.

6. 목사님, 그것은 속죄일 봉사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법원에서는 그 기록을 지우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성소와 지성소봉사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지시대로 했겠지요.

답: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는 용서받아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그가 지은 죄는 희생의 피를 바르고 뿌린 곳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예레미야 17:1을 읽었잖아요.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매년의 봉사 일 년에 한 번만 있는 지성소봉사 때에 말소됩니다. 곧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바르고 뿌린 곳을 완전히 씻어 없애는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성소정결봉사라고 하며 지성소봉사라고 합니다. 이 봉사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는 봉사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그날에 하는데, 그날이 유대종교력 7월10일입니다. 이날을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말로는 욕기푸르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성소정결봉사는 백성들이 일 년 동안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았으나 아직 성소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완전히 씻어서 없애는 예식인데, 혹시 백성 중에 죄가 남아 있는가도 살피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성소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속죄일이 오기 전에 종교력 7월1일부터 9일까지를 “야밈 노라임”이라고 하는데 “두려운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9일 동안 백성들을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에 성소 앞에서 대제사장의 지성소봉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정결하여집니다. 즉 모든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지요. 완전히 말소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성소정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소정결 예식의 핵심은 성소와 제단 뿔에 있는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없애는데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소정결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 이 예식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간과하면 성소정결 예식에 대하여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목사님, 그러면 성소정결 봉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죄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서 그 장본인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와 회개한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밝히는 것입니다.

8. 그것은 어떤 예식을 통하여 드러납니까?

답: 예, 바로 아사셀에 대한 처리입니다. 성소정결봉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6장을 읽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봉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숫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두 마리 숫염소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로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산 채로 두었다가 아사셀에게 돌립니다. 대제사장이 절차를 따라 지성소에서 봉사에식을 마치면 나와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숫염소에게 안수합니다. 형식과 의미로 휘장에 뿌려져 덮어두었던 죄들과 번제단 뿔에 발라서 덮어두었던 죄들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형식으로 죄를 아사셀에게 돌립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책임이 아사셀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은 루시퍼, 곧 사단을 표상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책임이 루시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숫염소는 다니엘 8장에 작은 뿔이 나오는 바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숫염소에게서 나온 작은 뿔의 정체도 드러내는 것이 다니엘 8장의 성소정결에 포함됩니다.

9. 아사셀이라는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답: 아사셀은 70인 역이나 라틴어 성경 불가타 등에서는 “떠나는 염소”라고 번역했는데, 염소라는 말인 에스와 떠난다는 뜻인 아잘의 합성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아람어 아잘라와 관계된 말이라고 이해하여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아잘라는 추방하다, 제거하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이해하든지 같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다 추방되어 제거되는 것은 같은 뜻이니까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영원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소정결봉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내어보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죄 자체가 처리된 것입니다. 루시퍼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바로 죄 자체입니다. 루시퍼가 제거됨으로 죄라는 실체가 우주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정결의 핵심입니다.

10. 아까 목사님께서 백성들이 이웃을 찾아다니며 회개하고 성소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핵심을 놓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요?

답: 우리가 성소정결봉사에 대하여 공부할 때 아사셀에게 죄의 모든 책임을 물어서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어 제거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회개한 백성들의 죄가 혹시나 하늘 기록책에 남아 있는지 살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소정결봉사의 본의를 놓치고 개인적 두려움에 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을 살피면 그런 측면이 절대로 없다고 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으나 핵심을 그것이 아니거든요. 루시퍼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실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또한 루시퍼가 만들어놓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과연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루시퍼는 자기의 정체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꿈쩍없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하늘이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정결봉사는 두려운 사건이 아니고 기쁜 사건이며 감사의 찬송을 크게

외쳐 부를 사건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복된 소식입니까.

11. 정말 그렇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니엘 8:12~14에 기록된 성소정결에 대한 내용은 세상에 있는 성소정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답: 그렇지요. 왜냐하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고 했으니 성소정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문제는 이 성소정결이 세상이 있는 성소인가 아닌가 하는데 있지요. 왜냐하면 작은 뿔이 헐어버린 성소와 차지한 타미드는 교권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제국로마가 교권로마로 바뀐 때는 빨라도 제국로마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국로마는 기원 476년에 망했고 그 후에 교권로마의 교권이 정치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미 이 세상에 모세의 성소도, 솔로몬의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여지는 성소가 세상에 있는 것일 수 없지요.

12. 그렇다면 그때 정결하여지는 성소는 어디에 있는 성소입니까? 만일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하늘에 있는 성소가 그렇게 정결해져야하도록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인지요?

답: 예,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적으로 바른 답을 얻어야 하거든요. 하늘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성소가 있다고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지요. 히9:11,12을 읽어봅시다.

[히9:11,12]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그곳이 성소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히8:4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들어간 성소는 세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성소가 건물이나 아니냐하는 것은 제쳐놓고 하늘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봉사하시는 성소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문제는 그 성소가 어떻게 더럽혀지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까 읽은 히9:11,12에 이어서 13,14절에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9:13,14] 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

느뇨.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늘성소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결국 하늘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 성소봉사에서 회개하는 각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휘장과 번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이 성소정결봉사의 한 측면이었잖아요. 하늘의 있는 것의 모형인 세상의 성소봉사가 그렇게 성소봉사와 지성소봉사가 있는 것으로 가르쳐주셨으니까, 하늘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성소봉사에도 성소봉사와 지성소봉사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리고 지성소봉사는 성소정결봉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 피로,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지만 하늘에 죄의 기록을 정결하게 하는 때까지 기록부에 두시는데, 그것은 아사셀로 표상된 루시퍼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자료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들은 다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소봉사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세히 배려하신 것이지요. 전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두신 성소봉사에 의거하여 말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세상에 성소를 주신 이유도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기록에 의하여 2300주야 끝에 작은 뿔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루시퍼의 실상을 완전히 폭로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왜 2300주야라는 기간이 필요한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말해야 할 것 같네요.

13.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의 기록이 하늘에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루시퍼의 정죄의 확실성을 위한 자료로 남겨 두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루시퍼를 정죄할 수 없습니까?

답: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보좌에 좌정하시고 책들이 펼쳐 있는 장면을 보았지요. 다니엘서에는 그 책들이 어떤 책인지 설명이 없지만, 그와 비슷한 장면이 계시록 20:12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책들이 펼쳐 있고 다른 책이 펼쳐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의 시기와 장면은 다르지만 펴 놓인 책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기록된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 확실하지요. 또 말라기 3장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들을 기록한다고 했으니 그것은 성도들의 회개와 정결과 하나님을 증거한 사실들이 기록된 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늘에 기록 책들이 있고 그 책들에는 선한 증거나 악한 생활이나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자료가 되었고 동시에 루시퍼가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거하는 자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부터 그의 정체는 짐작이 되었겠지만, 루시퍼가 워낙 참소를 잘 하는 존재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10~12을 읽으면 그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지요.

[계12:10~12]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유는 우리 형제를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로 마귀는 하늘에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주 거민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루시퍼의 정체가 거의 확정적으로 폭로된 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루시퍼가 총지휘하는 것을 봤으니깐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사실을 진상을 우주 거민들이 확인하는 일이 남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시퍼가 어떻게 방해했는지도 확실히 드러나야 했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주의 거민들,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주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것이지요. 다시는 루시퍼와 같은 대적하는 일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재발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4. 성소정결은 결국 루시퍼가 우주에서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온 우주에 증거하는 사건인 셈이군요. 결국 그것은 루시퍼에 대한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렇습니까?

답: 그렇지요. 또한 루시퍼가 만들어놓은 작은 뿔의 세력의 정체를 밝히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타미드가 회복되며 진리가 회복되어서 회복된 진리를 증거하는 무리가 형성되고 그들이 증거하는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영원한 복음을 따라 예수를 믿으며 그 사실을 온 세상에 힘 있게 외치는 일이 있고 그 빛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되고 그 증거가 마칠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소정결 사업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참된 진리를 회복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 재림 전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심판은 정결사업이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2300주야 끝에 있을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5. 목사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시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확인하고 바른 복음을 따라 예수를 믿고 재림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을 생활을 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